

◎ Book-mobile Services of the Dongdaimun Library

순회문고 1년 6개월

—동대문도서관의 이동문고 현황—

金 鎮 洙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장)

1. 머리말

도서관학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의한 순회문고(Book mobile)의 개념은 도서관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도서관 봉사에 혜택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또는 이러한 지역중 분관의 필요성이 정당화되기에는 인구가 적은 곳 등에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에 의한 순회방식을 통해 도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의 현실에서 볼때 이러한 개념은 너무도 소박한 것이다. 여기서 소박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동차에 의한 순회문고의 운영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에서 볼때 앞서 말한 일반적 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순회문고에 대한 보다 적절한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관시간 훨씬 이전부터 공공도서관 앞에 늘어진 열람자의 기다란 줄 이는 외형적으로 볼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듯 열성적으로 도서관을 찾는다는 데서 도서관인으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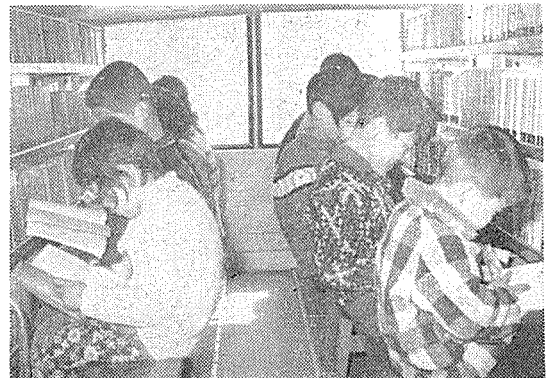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열람자의 장사진을 보며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갖는 도서관인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 공공도서관의 열람봉사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에 하나가 이러한 개관 한 시간전의 장사진속에 있다는 것을 도서관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거의 전부는 한정된 계층(주로 학생)으로 그들이 도서관에서 구하는 것은 단지 조용히 자습할 장소, 즉 좌석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으며 그 이상의 어떠한 도서관봉사를 기대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학생들에 의해 전 열람석이 점령되며 이로 인해 정말 도서관 봉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각 계층의 주민들은 그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되며 여기에 필연적으로 지역사회 각 계층의 주

민을 위해 애써 준비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에 의해 정리된 자료들은 사실상 사장되고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가 반복됨에 따라 결국 도서관은 학생층의 공부방을 제공하는 것이 그 구실에 전부라는 개념상의 전락을 초래하고 말았으며 이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아침 일찍부터 일부 계층에 의해 점령당함으로써 회생받게 되는 더 많은 타 계층의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해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애써 준비한 도서관의 각종 능력(도서관 자료, 봉사요원)을 사장 시키지 않고 활용 할수 있는 길이 모색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도서관을 찾지 어렵거나 찾지않으려는 지역사회 주민들 가운데 뛰어들어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봉사하는 방안으로서의 자동차에 의한 순회문고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보아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동대문도서관의 순회문고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된것이며 따라서 이 글은 일반적인 개념의 자동차문고에 대한 것이 아니다.

동대문도서관의 순회문고 운영방침 및 그 운영에서 얻어진 결과—그리고 몇가지 문제점을 소개하려하는 것이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이동문고를 이용하는 모습)

2. 순회문고 운영개요

가. 운 영

동대문도서관(이하당관) 순회문고는 1971년 3월31일 개관과 동시에 그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신설도서관으로서 제반 여건이 불비함에도 그 운영을 결정하게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1) 기존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당관도 개관하게 되면 이용자의 거의 전부가 학생층일것이며 그 경우 당관 역시 학생들의 자습실화를 면할 수 없다는 어쩔수 없는 현실을 관의활동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2) 당관의 수용능력이 충분치 못하여 공공도서관이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아동을 위한 아동열람실 및 부녀실을 갖지 못하여 그들을 위한 관내봉사를 하지 못함을 순회문고 운영을 통해 보충 하자는 것.

(3) 종래의 수동적 봉사를 지양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속에서 그들과 함께 직접 대화하며 봉사 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여 도서관봉사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이용자 층을 적극 개발 하자는 것.

(4) 입관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책으로 수험준비 내지 자습을 하는 관계로 관내자료 이용율이 만족치 못할것이며 이 경우 자료가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를 관의 이용자를 위해 제공함으로써 자료 이용의 극대화를 기하자는것.

(5) 우리나라 현실은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상실되며 어린이의 경우 적절한 오락시설이나 바람직한 독서 시설의 불비로 남는 시간의 대부분을 불량만화나 성인용 TV프로에 매달리게 되는 형편인바 이들에게 양서를 제공하여 독서의 기회를 부여하여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 시키자는 점.

이상 5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이를 순회문고 운영을 통해 실현시켜 보자는 데 있었다.

나. 운영방안

당관 순회문고는 동대문구와 성동구 일대를 봉사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구분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서울 시내 다른 2개의 시립도서관(남산, 중로도서관)의 봉사활동의 범위와 당관의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순회문고 운영은 이 지역내에서 일반주민과 학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1) 지역순회문고

지역의 일반주민, 특히 부녀자와 미취학 아동 및 등교전이나 하교후의 국민학생들을 주 봉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대문구와 성동구내에서 생활 정도가 중 이하이고 인

구가 밀집된 곳으로 도서의 이용율이 큰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대별로 독서 카아드를 지급하고 주 1회씩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순회문고 차를 주차시켜 요구하는 도서를 한세대당 5책의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매주 교체하고 있다.

문고용 도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당관의 방침에 의해 우량교양도서와 어린이용 도서로 구성된다.

(2) 학교순회문고

당관 봉사대상 지역내에는 50여 국민학교가 있는 바 이중 문고설치가 가능하고 이를 희망하는 학교에 문공부 및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우량아동도서와 교사용 참고도서를 서장 또는 서가와 함께 제공, 학교장 과사서 교사의 책임하에 아동들에게 대출 열람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도서는 매월 1회씩 차량으로 운반 교체 제공하며 1회 대출도서는 300책~500책 정도이다.

이밖에 종업원 100명 이상의 직장으로, 순회문고의 이용을 원하는 직장에 대해 요구에 따라 수시로 응하고 있으며 서울 근교의 농촌 4H와 협력하여 농촌 새마을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다. 운영현황

최초의 문고운영시에는 미비된 장비, 훈련되지 못한 봉사요원, 이용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었으나 차츰 필요한 장비를 보충하고 운영과정에서 얻은 여러가지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 발전시켜 현재는 당관이 목표로 한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현재 당관 순회문고는 지역의 경우 15개의 지역 5375 세대의 독서가족을 확보하고 있으며, 72년도에 이들에게 대출된 도서 총수는 46,757책이며, 73년 6월 30일 현재 32,754책을 대출 하였고, 학교문고의 경우 72년도 총 20개교에 연도서 대출수 197,118책, 73년 6월 30일 현재 문고 설치 21개교에 143,318책을 제공하였으며, 순회문고 운영을 희망하는 지역 및 학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당관의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제시한 통계에서 보드시 72년도의 순회문고를 통한 도서 이용수 243,875책은 같은 기간 관내 열람 총수인 81,501권과 비교해 볼때 순회문고를 통한 관리봉사의 효과를 충분히 인식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계상으로는 집계 될수 없으나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도서관 봉사를 통해 심어진 도서관에 대한 깊은 이해, 도서관인에게 보여주는 친근감등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다. (26면에 繼續)

KO ISSN 0022-7358

특가 1,500원
世界各國 名所の 歴史, 地理, 文化, 風俗 등을 원색사진으로 생생하게 紹介하고 있다.

- 1. 北歐篇 255p
 - 2. 中歐 " "
 - 3. 南歐 " "
 - 4. 北美 " "
 - 5. 南美 " "
 - 6. 亞細亞 " "
 - 7. 中近東 " "
 - 8. 阿洲 " "
 - 9. 東歐 " "
 - 10. 韓國 " "
- K980.24 D910.41

990 傳 記

이 은상
太陽이 비치는 길로 상 하 三中堂 19
73년 3월 2책 사진(부분칼라) 26cm
합권 9,000원
상권 465p
하권 447p

李忠武公의 一生 行蹟과 그의 戰爭과 思想을 公의 유적지를 실지 답사하면서 기록과 대조하여 실증을 얻어 쓴, 記行文 形式으로 된 이충무공의 전기서로서 各卷마다 公의 遺蹟地가 칼라사진으로 실려 있다.
K990 D920

世界人名大事典 文公社 1973년 2월
2책 26cm 18,000원

(7面에서 繼續)

72년도 실적 및 73년도 현황

구분	72년도 실적		73년도계획및실적		비 고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지역	45,000	46,757	48,000	32,754	73년 6월 30일 현재
학교	180,000	150,361	180,000	110,564	
계	225,000	197,118	228,000	143,318	

3. 맺는 말

우리나라 도서관 실정에 관한 모든 것이 그러하다 시 순회문고 운영도 여러가지 난관과 애로가 산적하여 있음은 물론이다.

시초 도서관 봉사の本질을 이해 못하는 지역사회 주민은 당관이 관청이라는 데서 묘한 감정으로 우리의 봉사를 순수한 눈으로 보아주지 않아 안타까울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학교문고의 경우 문고운영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있으나 문고운영을 담당할 교사들은 그들 자신의 학사업무 만으로도 업무량이 과중한 관계로 문고설치를 기피 할때에 당하는 어려움등의 정신적인 애로에서부터 문고운영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확보가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人類社會에 기여한 人物 5萬여명을 收錄하고 특히 東洋人의 人物選定에 신중을 기했으며, 附錄으로 노벨수상자 일람표 주요 국가원수 재위표, 국사 세계사 비교년표, 參考文獻이 卷末에 들어있다.

- 第一卷 本篇 2214p
 - 第二卷 現代人篇 328p
- K990 D920

999 系譜, 族譜

원호처 편
애국지사묘역조사보고서 1972년 12월
37p 사진(칼라) 26cm 비메
各處에 흩어져 있는 애국선열들의 묘소실태를 간단히 조사하였고 묘소미수 목자명단이 부록에 있다.
K999.83 D929.3

아동도서부

800 문 학

안 텔 선
그림없는 그림책 김요섭 편
寶齊齋 1973년 4월 152p 21cm 500원
동화작가 안텔선의 作品世界가 담긴 兒童文學思想集이며 주로 그의 여행중에 스캐취 된 것이다.
K800 D800

소년소녀 세계의 교양명작전집 한림
출판사 1973년 1월 12책 그림 21cm

8,000원

- (1) 파브르곤충기 파브르 저 이 동성 옮김 233p
- (2) 지하의 도시를 찾아 실리이 만 저 이동성 옮김 231p
- (3) 인간의 역사 일리인 저 이동성 옮김 218p
- (4) 비이갈호항해기 다아윈 저 최기철 옮김 226p
- (5) 아라비아의 영웅 로오렌스 저 조용만 옮김 218p
미지의 서부로 가다 퍼어크만 저 전제욱 옮김
- (6) 기적을 낳는 인간 반루운 저 이창갑 옮김
이상한 과학 오를로프 저 이동현 옮김 227p
- (7) 물과 원시림사이에서 시바 이찌 저
강두식 옮김 212p
- (8) 시이튼 동물기 시이튼 저 구 건 옮김 232p
- (9) 세계문화사이이야기 웰즈 저 김전수 옮김 221p
- (10) 해저 탐험기 비이브저 최영복 옮김
우주여행 오베르트 저 김중빈 옮김 227p
- (11) 미생물을 쫓는 사람들 그라 이프저 김사달 옮김 225p
- (12) 플루타르코 영웅전 플루타르코 저 양명탁 옮김 215p

시급해지는 문고용 장서 구입을 위한 예산, 필요한 장비의 확충이라는 물질적 애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난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애로는 봉사요원들의 성실과 인내 그리고 끊임 없는 새로운 대안의 연구를 통해서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 여건의 불비만을 원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당관의 순회문고 사업을 중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보다 향상된 도서관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당관이 순회문고 운영을 통해 느끼는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하는바, 그것은 도서관 이용율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도서관의 분실사고—도서관 봉사 활동중 열람자에 의해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분실도서 처리에 대한 제도적 구체책이 시급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도서관 최일선의 봉사자로서 누구보다 땀흘려 노력한 결과가 망실도서(대출자의 급작스런 이주, 능력상 변상이 불가한 열람자의 분실) 변상으로 보상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